

- 동아원 주식회사 -

반세기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비상

국내 Top 5 진입 - 2015년 국·내외 100만톤 판매 달성목표



▲ 이창식 대표이사

“동아원 주식회사”는 운산 그룹 산하의 동아SF(동아 제분과 SCF의 합병회사)가 지난 8월에 사명을 변경하여 탄생한 회사이다.

즉 제분업계의 선두주자인 동아 제분과 사료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SCF와의 합병으로 탄생한 것이 “동아원 주식회사”이며, 동아원 주식회사의 사료BU가 “동아사료”이다.

동아사료는 ‘신촌사료’, ‘SCF’, ‘동아SF’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당진과 원주에 2개 공장이 있으며 월 3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 품목으로는 육계, 오리, 산란 제품과

양돈, 양어, Pet 제품이 있으며, 고품질을 인정받아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동아원 주식회사를 거느린 운산그룹은 이 용구 선대 회장이 1952년 한국산업(도정업)을 시작하면서 운산그룹을 태동시켰다. 운산그룹은 18개의 계열사와 1개의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계열사로는 사료와 제분으로 이루어진 ‘동아원 주식회사’, 한국 제분업계의 선두업체인 ‘한국제분’, ‘동아 푸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해가온’, 운산 그룹의 효시인 고품격 도정업체 ‘한국산업’,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나라식품’이 있으며, 국내 와인판매 1위인 Montes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와인 아카데미, 요리 아카데미, 와인 프랜차이즈, 와인 판매점인 wine time을 운영하고 있는 ‘PDP wine’, 애완견 사료 ANF 및 동물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대산물산’이 있고 한국 내 Ferrari, Maserati를 수입, 판매하는 ‘FMK’, 미국에서 PET 사업을 하는 ‘KODO INC’와 중국과 캄보디아에 각각 1개의 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자원을 개발하는 KOGID, 교육기관으로

는 ‘논산여상’이 있다. 운산 그룹은 1단계로 종합식품 그룹으로 발돋움하고, 2단계로 글로벌 복합기업으로 성장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동아사료 (동아원 주식회사 사료BU)는 충남 당진에서 양계, 양돈, 양어, PET 사료를 월 2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에 월 2만 톤 규모의 가루사료 전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 사료 당진공장은 2007년 3월에 준공한 최신식 공장이다.

HACCP 인증은 물론이고 양축과 특수사료의 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항생제와 무항생제 라인이 분리되어 있고 HACCP 기준에 의한 위생적 관리로 신선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의 생산 프로세스를 확립한 공장이다. 동아사료는 품질 경영, 고객 제일주의, 인재 경영을 모토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첫째, 동아사료는 품질을 무엇보다 중요시 한다. 동아사료는 후발주자로서 양적으로 1위를 달성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최고가 되고자 한다. 오리사료는 국내 사료 판매량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며, 이미 2007년부터 전 품목 무항생제 사료를 출시하여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또한 오리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여 오리 산업 발전에 이바



▲ 홍순일 상무이사

지하고 있다.

육계사료는 생산지수 300 이상을 달성한 농가가 150 호를 넘어서고 있어 최고의 제품임이 입증되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슈퍼 프리미엄 사료로서의 자긍심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다. 네덜란드 “FIS”와 기술제휴로 정밀한 원료평가 및 과학적인 배합비 작성으로 고품질의 양돈사료로 이미지를 변



▲ 동아원(주) 당진공장 전경

신하여 양돈 사양가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최첨단 가공설비를 통해 생산한 양어, Pet 제품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둘째는 고객 제일주의다. 동아사료는 "고객지향"을 강조하여 '고객의 가치, 고객의 이익'에 전 직원이 매진한다. 그 결과 한 사람의 고객 불만 사항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사료연구소, 생산본부, 물류팀은 영업부와 항시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품질회의'의 정례화, 크레임 발생시 '즉각적인 회의'로 대응하고 있다. 동아사료는 고객이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고품질 사료를 생산하며,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는 인재 경영이다. 기업의 승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이창식 대표이사 철학이 반영되어 인재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우선 채용하여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계영업부, 양돈영업부, 양어 영업부, PET 영업부로 세분화하여 각 축종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운산그룹은 글로벌 복합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확고한 비전이 있으며, 특히 동아사료는 2015년에 도달하여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 국내·외에서 연간 100만 톤을 판매하는 것이다. 성숙기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아사료는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반드시 "100만톤"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계열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이어나가고 해외 사업도 중국, 캄보디아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